

생활경구를 가훈으로

법구경·보왕삼매론등 인기... 삶의 지혜 일깨워 자비의 전화 주최, 가훈 써주기 행사 성황

부처님의 말씀을 새긴 생활 용품이 늘고있는 가운데 경구(경전 글씨)보급을 위한 행사가 열려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호응을 얻고있다.

전화상담기관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는 지난 달 27일 본사 지하 녹수정전에서 '한가정 불자 한점 모시기 및 가훈 써주기'를 위한 '일일차집'을 개최했다.

이날 자비의 전화 행사에는 능허스님이 비롯 서예가들이 현장에서 5백여명의 불자들에게 경구를 써주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성훈스님(좌)이 3년 묵은 오손 '佛'과 반야심경, 한산습득, 육바라밀 등의 경구를 보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생활경구가 불자들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 표구자는 물론 달력이나 시계 등

의 생활용품에서도 쉽게 부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

불자들에게 인기를 모으는 경구는 '佛' '보왕삼매론' '반야심경'을 비롯 '법구경'과 조사이록 등에 나오는 글귀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농치기 쉬운, 마음을 바로잡거나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말이다. 특히 일부 불자들은 집안에 불상을 대신하여 경구를 모시고 예경을 하기도 한다.

생활경구의 보급은 대부분 사찰이나 신방단체가 앞장서고 있다.

대전 태고사(주지 도천)는 '법구경'을 매달 1만장의 화신지에 인쇄해 보급하고 있다. 사찰 참배객은 물론 인근의 사찰신도들에게 경구를 보급하고 있는 태고사의 법공양은 10여년을 이어오고 있다.

법공이적용 전문으로 출판하

는 우리출판사(대표 김동규)에는 매년 15개의 사찰과 단체가 경구인쇄를 의뢰하고 있다. 이곳에서 인쇄되는 경구는 대부분 '보왕삼매론'으로 1년에 20여 만장이 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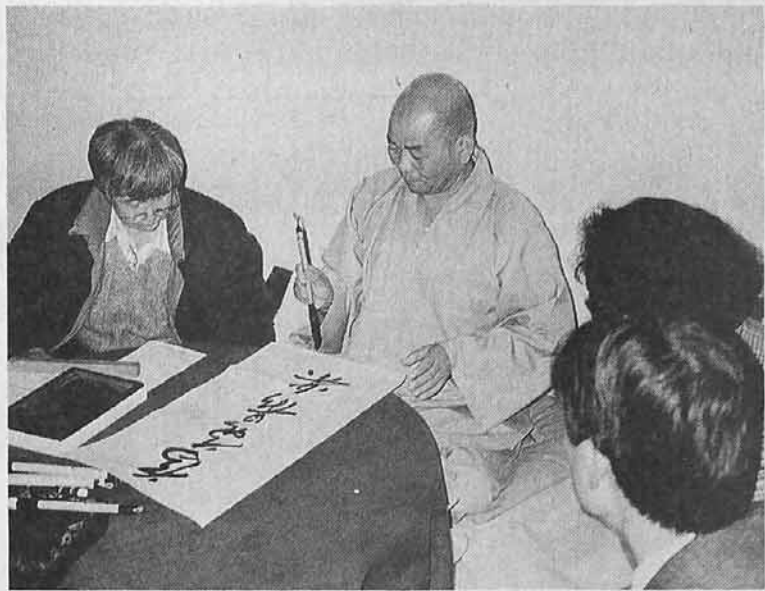
생활경구는 공공시설에서도 인기가 높다.

서울 마포 다보빌딩, 대한불교진흥원 소유인 이 건물 엘리베이터에는 액자에 경구가 매주 하나씩 걸린다. 대부분 '법구경'과 조사이록에서 뽑은 글귀들이다. 하루에도 10여 차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입주회사원 유재중씨는 "30초 내지 1분가량의 엘리베이터 이용시간 가운데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여색해하다 액자를 발견했다"며 "불교인은 아니지만 모두가 가슴에 새겨줄 말이야 항상 되새겨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화장실의 '입칙진

인' 식탁위의 '공양계'등 일상 생활에 맞는 부처님 말씀이 세련되게 제작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또한 불교용품중 책갈피나 어린이용품 등에도 부처님말씀이 새겨져 상품가치를 높이는 한편 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준업 기자)



◇지난달 27일 열린 '자비의 전화' 주최 가훈써주기 행사에서 능허스님이 불자들에게 기운을 써주고 있다.

새 총무원장 취임식 9일 조계사 대웅전

월주 조계종 신인 총무원장의 취임법회가 오는 9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교계 및 일반 정·재·사회계 등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초청될 법회 후 오후 6시부터는 타워호텔 컨벤션홀에서 취임 축하 리셉션이 거행될 예정이다.

안성불광원 개원 광덕스님 주석

경기도 안성군 불광원(법주 광덕)은 지난달 27일 목불 집안식을 겸한 개원식을 봉행했다.

불광원법회원 2천여명이 참석한 개원식에서 광덕스님은 "반야바라밀을 수지, 선양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불국토 건설을 위해 항상 정진하자"고 말했다.

광덕스님은 앞으로 불광원에서 머물며 수행에 전념하게 된다.

승려탄압 중지 촉구 WFB·WFBY 대회 성료

제19차 WFB·WFBY 대회가 태국 방콕에서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열렸으며 미치고 28일 밤 막을 내렸다.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베트남, 미얀마, 인도, 네팔등 국가로부터 불교·승려들이 탄압받는 국가에 공식 성명서를 보내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WFB가 공식적으로 인권문제를 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는 37개국 132개 지부 가운데 27개국 72개 지부 6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북한측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불참과 일본 조총련계 단체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정치적 상황 때문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승려 경로잔치 신월청소년 독서실

구립 신월청소년 독서실(관장 배정길)은 지난달 29일 독서실 경로회관에서 '94승려경로잔치'를 베풀었다.

노인 4백여명과 관계인사 1백여명 등 모두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경로잔치에서는 중앙후에 남인구기념사업회 지원봉사단원 20여명이 여흥을 베풀기도 했다.

또 (사) 법사동우회에서는 쌀 10가마를 보내왔다.

군법당 원홍사 낙성 군불자 새로운 수행도량

경기도 고성군 구성리의 육군 제22사단 군법당 원홍사(주지법사 이정우)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도라산(건봉사 주지)을 증명법사로 낙성식을 가졌다.

한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0여명의 공자를 마련한 원홍사는 이 지역 군불자의 새로운 수행도량으로 자리잡게 됐다.

"재가불자 종회서 발언가능"

월주 총무원장 신도대표들과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29일 재가불자들의 모임인 "오랜 연륜을 가진 전 국민교회의 범용을 살리며 한국재가불자연합과 연합해 새로운 재가모임으로 탈바꿈해 개혁적업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회장 안동일)이 주최한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스님 취임 축하모임'에 참석한 월주스님은 재가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일문일답을 가졌다. 신도의 종교 참여에 대해서는 "현상황에선 불가능하고 향후 결의권 없더라도 발언권 확보차원에서 종교 참여는 가능할 것"이라며 "재가포교사를 많이 배출해 교화부분의 주체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등 포교대상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사찰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들을 인사행정에 반영해 달라라는 주문에 대해 "인사고과에 늦게 평가하겠다"고 쾌히 응낙했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재가자는 다음과 같다.

서문각(진중원 이사장) 오영근(동국대학교) 한상범(문) 이문옥(전 감사관) 안동일(번호사) 이재훈(문) 김경은(문) 민병준(회계사) 김경복(달마회) 이순규(의사) 권지홍(신도회 기획실장) 장영(대불원 회장) 이상현(대불원 회장) 김재일(동산반이회 회장) 등.



문학 황선하·봉사 허재중씨
마·창불교연, 시민불교문화상 시상

불교유일의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이 11월 30일 마산 사보이 호텔 4층 대회의장에서 거행됐다.

마산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지안)는 이날 스님과 지역 기관장, 언론인 및 불자들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1부 시상식에서 문학상 황선하씨(63. 경남여상 교사), 언론상 김호길씨(56. 경남신문 편집부국장), 예술상 조순자씨(50. 경남국악교육연구회 회장), 봉사상 허재중씨(73. 남마산 라이온스클럽 회장)를, 문화단체상에 마산신민문화보존회(회장 구상훈)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 가운데 문학상 부문의 황선하씨는 향토원로시인으로 55년(현대문학)지에 시 〈벽〉으로 등단한 이래 다수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교직생활 30여년동안 작문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상부문의 김호길씨는 의령 경찰 총기난동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이 전세계 언론에 인용 보도되는 등 개가를 올렸으며 경흥스님 대비시 정면 등이 한국보도사진연감에 수록되는 등 생생한 역사현장을 담은 사

진을 많이 남겼다.

국악의 해를 맞아 국악인물 선정한 예술상 부문의 조순자씨는 35년간 우리가락에 몰려 살아오면서 국악에 대한 끈질긴 집념과 열정을 쏟아왔다.

봉사부문의 허재중씨는 정밀사 시민발동, 문수암 사티타, 내원사 요사채건립등 각종 불사와 결핵병원 후원 등 종교인으로서 무수한 보시행을 펼치고 있다.

문화단체상부문의 마산 민속문화보존회는 지난 81년 민속예술의 발굴 재현과 보존 진흥을 목적으로 창단되어 민속혼의 맥을 잇는데 힘써오고 있으며 마산 농정놀이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수상자들은 각각 1백만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았다.

한편 시민불교문화상은 지난 91년 마산 창원지역 불자들이 지역불교와 향토문화의 창달에 공이 많은 이를 선정, 해마다 수상을 해오고 있다. 이상은 문학상, 봉사상, 예술상, 언론상, 문화단체상으로 나눠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진 재가 불자들이 대상에 선정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불교방송·인본조정특위=

동국대 신학풍운동 펼친다

사제대학 정례화... 인성교육 기대

학생들의 교수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동국대학교(총장 민병철)가 대학의 인성교육강화와 면학풍토조성을 위한 '신학풍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동국대는 지난달 28일 대학 본관앞에서 교수 직원 및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풍운동본부' 헌관식을 갖고 세부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신학풍운동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최근 일어나는 비교육적 학원풍토는 인성교육의 부족과 면학의식의 결여에서 생긴 산물"이라 규정하고 "향후 교수와 사제간에 자비와 존중이 넘치는 명랑한 학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해 '선과 인간' '형상과 자아' '논어와 예기' 등 교양과목을 95학년도부터 개설토록 했다. 여름방학기간중에는 전학이념구현 일환으로 3백여일의 사찰수련회를 마련, 희망지에 한해 실시기로 했다.

한편 동국대는 부총장을 본 부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매주 1회 회의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자질향상을



◇신학풍운동본부 헌관식

위해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병행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사제관계가 원만히 회복되도록 교수 학생간 대화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원화와~' 통일축제 청소년 4백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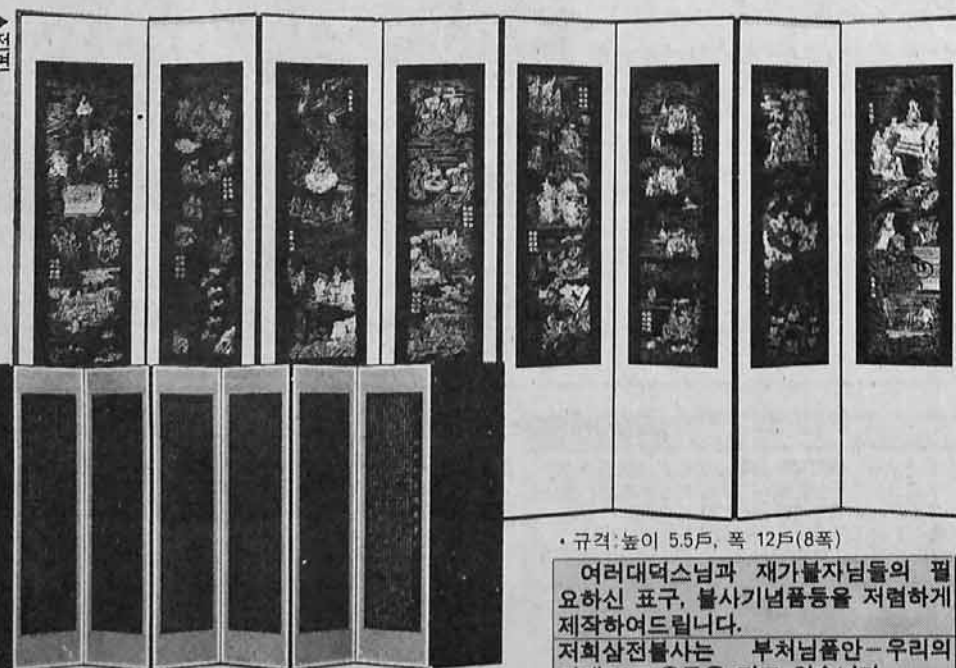
사단법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박헌성)가 주최하고 교화연합회 인천지부가

주관한 "원화와 화랑들의 모임" 통일 대축제가 지난달 26일 인천시민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됐다.

원화랑단 단장 김선일스님(교화연합 인천지부장)의 대회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해군 군악대의 축하연주를 비롯 원화랑 대표의 축하무용과 중창이 무대를 매위 이날 축제에 참가한 4백50여 청소년들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인연공덕을 쌓는 성품 佛子님들에게 표구비만으로 드리겠습니다.

석가세존일대기(팔상록), 금강경원력 병풍



· 규격: 높이 5.5부, 폭 12부(8폭)

여러대덕스님과 재가불자님들의 필요하신 표구, 불사기념품등을 저렴하게 제작하여드립니다.
저희살전불사는 부처님품안-우리의 미래 포교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명품-팔상록, 금강경

· 작품예술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 일대기를 金畫로 전면에 조성하고 후면에 경전의 으뜸인 금강경을 金畫로 사경하여 원력을 담았습니다.

· 전면:팔상록 · 후면:금강경

1. 도솔래의심-석공에서 마야부인의 태중에 드시다.
2. 비림김생심-몽비니 꽃동산 탄생하시다.
3. 시문유관심-생노병사의 허부를 관할하시다.
4. 유생출가심-한밤에 책을 넣어 미리를 깔고 사문이 되시다.
5. 십산수도심-십산의 6년 고행 최후구경의 정각을 이루시다.
6. 수하원마심-마왕과승의 도전을 받고 공복을 받으시다.
7. 녹원전법심-5비구의 귀의와 녹야인 설법하시다.
8. 쌍림일대심-염반에 드시다.

포교기념품중 부처님의 성품을 통하여 대중 포교를 피고자 본성품을 선정하시는 분께 백자 반야달마도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백자 반야 달마도자)

특별보급가격: W390,000(현금및 은행신용카드)
장기분할가격 W428,000 인수시 44,000, 매월 48,000×8회

황금 관음친견도

대비성자이신 관세음보살친견도를 가정마다 모시는 불자가 됩시다.
힘들고 어려울때 입을 열어 주십시오.



재가불자 성도거사님이 직접 그린 금화입니다.
· 크기규격: 1520×620 (%)
· 포교가격: W198,000원

한국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三田佛事포교원
문의처: (02)439-6128~9

(콜로버서비스)전화 080-022-1100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콜로버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